

1. 김태평^[6]

- 본작의 주인공. 21세기 한국에서 '성주혁'이라는 이름이었고, 일반외과를 전공해 외상외과의 전임 조교수까지 되었지만 [뇌종양](#) 판정을 받고 망연자실해 하던 중, [환생 트럭](#)에 의해 19세기 영국에서 조선인으로 다시 태어난다.^[7] [인종 차별](#)이 극심하던 시대였지만 열린 마인드의 지역 유지의 후원을 받아 [UCL](#)의 대에^[8] 입학한다. [마취·위생·소독](#) 등의 개념이 없어 앞이 캄캄한 상황이지만 리스톤 같은 동료들 만나 외과의 기초를 함께 세워나간다. 현대지식으로 진료를 볼 때마다 조선 의학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구라 마스터'가 되었다. 한편, 본인도 어느 새 인체실험에 익숙해지는 등 어엿한 19세기 의사로 진화하고 있다.^[9] 마취약 발견과 뛰어난 수술 실력으로 주목을 받다가 빅토리아 공주 앞에서 해부 시연을 하여 스타 의사가 되었고 입학한 지 1년도 안되어 로버트 리스톤의 강력한 추천과 추진으로 면허를 받고 런던대 교수로 임용되었다. 병원 내에서는 전임자 론의 분야를 이어받아 [전립샘 비대증·치질·포경 수술](#)을 메인으로 하면서^[10] 다른 분야에도 손을 대고 있다. 콜린 형의 코를 재건하는 성형수술을 하고 인슐린을 개발했고, 제이미 경의 당뇨병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내과 진료도 하는 중이다. 덕분에 분원 개념으로 센터를 열어 지분을 얻고 그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게 되었다. 살바르산 [606호](#)의 임상시험을 군에서 진행하고 기사 작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군의관으로 입대해 아편전쟁에 참전한다. 피아를 가리지 않고^[11] 개두술, 사지절단술^[12], 심낭 압전 치료를 위한 사혈 등을 시행함으로써 청나라 주술사로서의 위명을 다시 떨친다. 조선의 [홍삼](#)^[13], 미국에서 수입한 [치약](#) 대용품 불소수, [생리대](#)로 쓸 이끼를 가져와서 영국에서 팔아먹는 쇼닥터로 거듭나고 있다. 중반 이후부터는 주술사 이미지도 상당히 생긴다. 청나라를 주술 한 방에 무너뜨렸다는 주술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니 하고, 일본에서는 대놓고 저주를 걸겠다고 한다. 주술사 이미지가 퍼지면서 영국 안팎으로 두려움을 사는 중. 크림 전쟁 때 재입대하여 군의관으로서^[14] 나이팅게일과 함께 야전병원 체계를 만들었고, 이는 영국군의 압도적 승리에 크게 기여하여 세습백작 작위를 받는다. 전쟁 중에 결핵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겨우 살아났고 원시적 항생제를 개발해 결핵을 이겨냈다.

2. 로버트 리스톤^[15]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의과대학 교수.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이자 절단 마스터. 의사가 아니라 깡패 두목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엄청난 품체와 험악한 얼굴을 자랑하고, 수술할 때 쓰는 크고 아름다운 '리스톤 칼'^[16]은 아예 상징이

되어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환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의대 신입생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든 배울 자세가 되어있는 참된 의사다. 절단술로 병원에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여 주는 만큼^[17] 런던 의대의 실세로, 황인종이라 괄시받기 쉬운 태평을 지켜주는 조력자이며 지금은 의형제 사이이다. 배를 가르느 개복으로 분야를 바꾸었지만 팔다리 절단도 틈틈이 하고 있다. 괴력을 가진 천하장사로 필요한 연장이 없을 때마다 쓸쓸히 활약한다.^[18] 초반을 지나면 대놓고 소드마스터로 불리며 칼로 쇠사슬이나 쇠창살을 깔끔하게 베어버리는 미친 절단 능력을 보여준다. 미국에 가서는 칼로 곰의 앞다리를 가볍게 썰어 버리고는 시시하다는 감상을 남긴다. 일본에서는 반쯤 오니 취급을 받는다. 조선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아편전쟁 종군 후에는 아예 조선인 훈장을 집에 데려다 놓고 문화를 배우고 있으며 태평보다도 능숙하게 한자성어를 활용하고 한자를 써먹는다. 조선에 왔을 때는 독자들 반응이 대놓고 태평보다 리스턴이 양반같다고 할 정도. 여러 차례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혁혁한 공을 세운 덕에 크림 전쟁 후에는 세습백작이 된다. 상술한 바를 보면 힘만 쓰고 호탕하기만 한 인물로도 여겨질 수 있는데, 작중 태평이 진짜 천재가 맞다며 수시로 그의 추론 능력도 칭찬한다. 가르쳐 주지도 않은 현대의학적 개념을 약간의 힌트만으로도 스스로 깨우치거나, 현대적 술기나 약들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을 태평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등 당대의 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작중 내내 증명해준다.

3. 조지프 리스터

- 태평을 후원해주는 지역 유지의 아들. 태평과는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고향 친구로 그에게 영향을 받아 외과 의사를 꿈꾸고 같이 런던대에 입학한다.^[19] 그의 옆에서 충실하게 외과 지식을 쌓으며 조수로 활동하고 있다. 미아즈마 이론을 받아들여 완벽한 소독을 위해 노력한다. 또 소독약의 발명 이후로는 주인공 근처에서 상처 소독이나 물건 소독도 주로 담당해서 소독 관련 노하우는 조지프가 제일 많다. 태평은 손이 빠르지는 않아도 진득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그가 백내장 수술을 계기로 안과 분야로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특급 VIP 환자가^[20] 생길 시 리스터가 직접 나서서 소독해야 하므로 그냥 소독 전문가가 되어가는 모양새이다.

4. 엘프리드

- 런던 자본가의 아들이자 태평의 선배. 해부 실습 도중에 손가락이 베여 목숨이 위험했지만^[21] 태평이 상처를 치료해준 덕에 살아났다. 이후에는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그의 아버지도 태평이 계획하는 콘돌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22] 이후에 맹장염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엘프리드를 태평이 수술을 감행해 목숨을 건졌고 그의 말이라면 뭐든 믿고 따르는 믿음직한 조수가 되었다. 그러나 손재주는 별로라 마취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자주 맡다 보니 주인공 이상의 전문가가 되었다. 당시 마취 가스를 제대로 쓰는 사람은 주변의 일부만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때 엘프리드는 세계 최고의 마취 전문의가 된 셈이다.^[23] 이 외에도 가문에서 현미경을 태평에게 지원해주는 등,^[24]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일에 든든한 받침목 역할을 하는 중이다.

5. 콜린

- 귀족의 아들이자 인종주의자. 장남은 아니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의사가 되려 하며^[25] 황인인 태평이 리스턴의 총애를 받자 시기한다. 그러나 마취제 테스트를 위해 생니를 뽑히고 소독 실험을 위해서 썩은 템즈 강물을^[26] 들이키는 등 의학발전을 위해서는 제 한 몸 아끼지 않는 용감함도 갖추고 있다. 경원시하던 태평이 1 년도 안 되어 면허를 따고 교수가 되는 등 실력으로 놀러버리자 어느 새 제자가 되어 수술 술기를 배우고 있는데 태평의 평에 의하면 놀랄 만큼 재능이 있다. 스승이 장기출장 중일 때는 단독으로 수술을 여러 번 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